

2022

신입교사 역량 강화
시리즈 교육

부모 면담의 실제 :

일시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오후 4:00

대상 :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목 차



부모 면담을 시작하며

1. 부모상담의 목적
2. 교사의 역할
3. 효과적인 의사표현



부모 면담 준비하기

1. 부모 면담 과정
2. 면담 시 유의사항
3. 면담을 마친 후



부모면담의 실제

1. 영유아 발달 이론
2. 가정과의 연계
3. 실제 사례

I. 부모면담을 시작하며

부모상담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학부모는

- 어린이집에서의 자녀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음
- 객관적인 아이의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음

교사는

- 아이를 둘러싼 가정환경을 파악할 수 있음
-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방법을 파악할 수 있음
-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아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 방법을 알 수 있음

부모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아이의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부모와 교사가 신뢰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됨

부모와 교사(어린이집)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함

면담 전, 준비사항

- 아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한 객관적인 발달을 파악하기
-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쌓기
- 부단한 연습을 통한 부모상담의 부담감 최소화 하기
- 아이에 대한 애정 있는 마음 갖기

1. 평소 부모와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관계 형성하기

하루일과 중 아이의 놀이 모습, 기본생활을 부모와 소통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함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 교사의 사소한 실수에 대한 대응이 원활해질 수 있음

TIP

• 늘 수용적인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일상 생활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자

• 부모와 직접 정확한 소통을 하자 :

전달 내용이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부모와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함.

민감한 사항일 경우, 귀가 책임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문제 상황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음

• 크고 작은 일이라도 동료교사 또는 원장과 의논하자

•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경우, 양해를 구한 후 추후 답변을 하자

2. 진심으로 공감하기 : 부모의 마음 이해하기

부모의 입장 :

내 아이의 부족한 점에 대한 불안과 걱정, 부모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음.

부모 자신과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법을 알기 어려움

정보의 홍수로 인한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움



교사는 부모의 불편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함

3. 상대를 존중하기 :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자!

교사가 부모에게 권위적으로 대하거나 매사에 처방하려는 자세보다는

교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조자임을 알림.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부모가 겪게 되는 감정, 사고,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음.

부모와 반대 의견을 전달하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하기 보다는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교사가 가진 다른 생각을 부드러운 음성이나 비언어적인 단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TIP

“선생님은 아이를 안 키워 보셔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가이다.

“어머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물론 어머님보다 아이를 키운 경험은 부족할 수 있으나 저는 육아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접해보았고, 아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훈련 받은 교사이기에 00이를 교육함에 있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머님께 여쭙보고, 기관에서의 생활은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어머님과 협력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

4. 격려하기

격려는 상대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임.

격려를 할 때에는 상대의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이 아닌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만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대단하다 등의 가치 판단적인 단어보다는 노력과 성취에 대한 가치를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TIP

적절한 격려는 부모의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고, 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어머님께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OO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셔서 그런지

OO가 성격도 밝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5. 영유아 발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하기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토대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육방법을 공유.

학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을 점검하고, 자녀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양육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어린이집과 가정이 영유아의 긍정적인 발달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계를 할 수 있음.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

1.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기

부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

교사 자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자신이 들었던 말투 중 좋았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떠올리며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유아의 문제상황을 이야기 할 때에도 부정적인 표현 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사용한다.

TIP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녀의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상담을 시작하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유아의 좋은 행동, 성취, 변화를 찾아서 칭찬하는 것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부모에게 중요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가 영유아를 칭찬하는 말을 한 다음에는 부모가 발견한 긍정적 변화가 있는지 질문한다.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

2. 바람직한 언어를 사용하기

은어나 속어, 신조어의 사용은 부모에게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전문 용어나 난해한 단어의 사용 역시 부모와의 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를 선택한다.

자신의 언어 사용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또는 발표를 할 때 녹음을 하여 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

3. 적절한 표정과 동작 사용하기

미소 띤 표정과 온화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이제 대화를 시작해도 좋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세는 반듯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과한 손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세와 동작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고려해 본다.

높은 목소리 보다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에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

4. 공감하며 경청하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청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목소리의 떨림이나 높 낮이, 표정, 동작에도 주의를 기울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적절한 표현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



「반영적 경청」 하기의 방법

반영적 경청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과 의미를 알고, 자신이 이해 받고, 수용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로 표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상담 도중 사용한 용어를 포함하여 교사가 다시 말하면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예)

-**부모** : 애가 어릴 때 많이 아파서 늘 예민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교사** : 네, 어머니가 힘드셨을 텐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런지 OO가 밝고 씩씩해요. 다른 부분보다도

앞으로는 또래관계 형성에 신경을 더 써 주신다면 다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

5. 이야기의 시작과 마무리 말을 준비하기

어떤 말로 시작을 풀어나가야 할지, 대화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날씨와 건강, 하루일과 중 있었던 아이의 에피소드 등 가벼운 소재로 이야기의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의 마무리 역시 대부분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

TIP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주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상대에게 따뜻한 온정, 관심을 보이자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교사의 태도에 감동받는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자(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II. 부모 면담 준비하기

영유아 관찰 :

관찰일지

포트폴리오

사진.동영상 등

부모 면담 기록지

사전 작성 :

부모와 공유할

영유아의 발달 상황
행동,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생활등을

정리

영유아를 둘러싼 주변환경 생각하기 :

영유아와 부모의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지원방향 모색하기 :

영유아 발달 특징과

영유아의 가정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양육방법에 모색

지속적인 부모면담:

어린이집에서 보여지는

영유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올바른

발달을 지원

영유아 관찰 :

관찰일지

신입원아 적응일지

포트폴리오

사진·동영상 등



관찰일지 • 신입원아 적응일지를 토대로 한 면담일지 작성

영유아의 적응 모습을 자세히 적은 관찰일지, 신입원아 적응일지 작성

놀이, 사회관계, 배변, 식습관, 낮잠, 총평 영역으로 나누어 영유아의 적응 초기와 변화된 모습을 작성.

어린이집에서의 지원 방향과 가정과의 연계 내용을 작성하여 부모와 공유.

신입원아 적응일지 작성의 예

2021년 신입원아 적응기록

아동 이름				생년월일			
연령		만 ○ 세		반이름		○○ 반	
날짜 관찰내용	등.하원	놀이		식습관	낮잠 및 휴식	배변	
■적응 1일차 ○ 월 ○ 일 등원시간 : 시 분 하원시간 : 시 분							
■적응 2일차 ○ 월 ○ 일 등원시간 : 시 분 하원시간 : 시 분							
■적응 3일차 ○ 월 ○ 일 등원시간 : 시 분 하원시간 : 시 분							
■적응 4일차 ○ 월 ○ 일 등원시간 : 시 분 하원시간 : 시 분							
■적응 5일차 ○ 월 ○ 일 등원시간 : 시 분 하원시간 : 시 분							
총 평							

• 등.하원 :

-보호자와의 분리 모습

-하원 할때까지 보호자를 찾지 않는지 여부

• 놀이 :

-선호하는 놀이

-놀이시 보여지는 교사.또래 간 의사소통, 표현

-또래 간 관심, 갈등 상황의 해결 등

• 식습관 :

-급.간식의 양

-선호하는 음식

-먹는 모습

• 낮잠 및 휴식 :

-잠들기 전

-수면시간

-깨어난 후의 모습

• 배변 :

-배변의사표현

-배변의 양

-배변 시간 등

부모 면담 기록지

사전 작성 :

부모와 공유할

영유아의 발달 상황

행동,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생활등을

정리

TIP

부 모 면 담 일 지

반이름			아동이름	
면담일시				
면담자			대상	○○○ 어머니
교사의견	등.하원			
	놀이			
	식습관			
	낮잠 및 휴식			
	배변			
부모의견				
면담결과				

면담시간표 작성

면담 시간표를 작성한 후, 학부모에게 전달 : 최소 면담 2주 전.

면담 시간표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 상황에 따른 일시를 조정.

확정된 면담 시간표는 원장에게 보고, 교사실에 게시하여 공유.

면담일 전날 알림장에 면담 일시를 다시 한번 개별 안내

면담 시간표는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함.

면담시간표 작성의 예

	4/19 (월)	4/20 (화)	4/21 (수)	4/22 (목)	4/23 (금)
1:30~2:00	씩씩이				
2:00~2:30	용감이	꿈꿈이			
2:30~3:00					
5:00~5:30		튼튼이			
5:30~6:00					

면담 환경

영유아의 놀이 장소와 분리된 곳, 조용히 통화할 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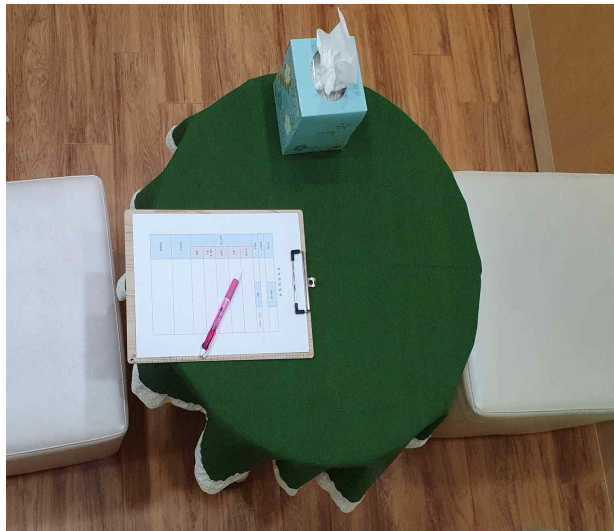
•대면 면담에서의 준비물

- 작은 테이블 또는 책상
- 각 티슈
- 교사 시선에서 보기 편한 위치의 시계
- 면담일지, 필기 도구

•비대면 면담에서의 준비물

- 교사용 생수
- 면담일지, 필기 도구
- 교사 시선에서 보기 편한 위치의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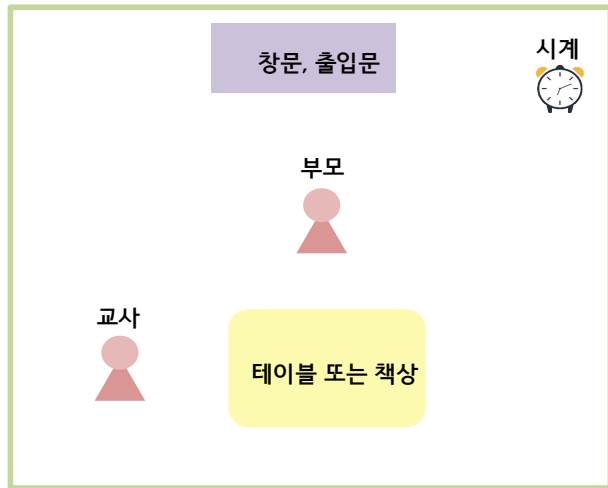
면담 준비물의 예



자리배치

- 교사와 학부모의 자리배치 : 학부모는 창문 또는 문을 등지고 앉는 자리에 배치.
- 부모가 창문을 바라보는 위치라면 커튼, 가리개 등을 이용해 창문을 가림으로써 시선의 분산을 방지.
- 테이블 또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학부모와 맞은편 보다는 옆에 앉는 것이 더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음.

면담 준비물의 예



교사의 모습

- 깔끔한 머리 스타일
- 손톱은 길지 않고 정돈된 상태
- 편안하면서도 정돈된 차림
- 계절 및 실내온도에 적합한 복장

교사의 면담 자세

- 관심 어린 표정으로 주의를 기울임
- 부모의 말에 집중하며 시선 맞추기
- 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
- 팔짱을 끼고 듣거나 상담 중 시선을 외부환경으로 돌리지 않음
- 줄임말, 신조어 등을 사용하지 않음
- 손은 면담지, 볼펜 등을 잡고 있거나 다소곳이 모음
- 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지루하거나 조급한 표정을 짓지 않음
- 목소리 음량을 잘 조절해야 함

1. 면담의 처음

가벼운 인사(날씨, 오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 등)와 함께
당일 또는 며칠 전에 있었던 해당 영유아의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

오전 실외 산책을 나가려 하는데 OO이가 다른 친구의
신발을 꺼내 주었어요.
요즘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구를
도와주려는 모습도 보여요

2. 부모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한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부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미리 판단하거나 문제에 대한 결론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것에 주의한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틀리셨어요. 00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어머님이 계속 해 주고 계시잖아요” (X)

“어머니 생각은 그러셨군요, 제 생각에는 00이가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00의 자조능력 발달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

3. 영유아의 장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다

영유아의 장점 또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막연히 “잘 지내요” “좋아요” “잘해요”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함.

•친구를 좋아해요 →
오전에 등원하여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요

•친구를 잘 도와줘요 →
다친 친구가 있으면 옆에 앉아서 ‘호~’하며 위로 해주어요

•언어표현을 잘해요→
다양한 어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와 같은 접속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장의 길이도 길어졌어요

4. 영유아의 행동문제 및 단점을 이야기 할 때에는

부정적인 표현 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

- 고집이 세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 아무렇게나 막해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 교사에게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 아직 못해요→
발달 중에 있어요

5. 부모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담긴 질문을 할 때에는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질문함

부모가 이야기 한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함

어린이집에서의 관련 행동이나 사례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 함

- “그러한 일이 있었군요 ” 라고 공감하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도울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6. 면담을 마칠 때에는

다음 면담을 위해 적절한 마무리가 필요하며

마무리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적절히 시간

안배를 함

학부모의 우려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전달

- 앞으로 ○○이의 행동을 좀더 관찰하고, 적합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교직원들과도 논의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 면담 내용을 부모 의견, 교사의견으로 나누어 면담 일지에 정리
- 면담 시 어려웠던 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원장님 또는 다른 교사와 공유
- 즉시 답변하기 어려웠던 점들은 전문 서적 및 동료교사, 원장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답변을 정리하고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바라는 점들을 정리하여 원장과 공유
- 면담 시 부모의 바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평소 영유아의 지도에 반영하며 경우에 따라 영유아의 변화된 모습 또는 새롭게 발견된 모습들을 등.하원 시 또는 유선으로 학부모와 공유

III. 부모면담의 실제

1. Freud 심리성적 발달단계

• 구강기(생후 1년) :

입과 구강 부위가 쾌락의 원천이다. 빨기, 먹기 및 물어 뜯기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진다.
구강기의 병리적 특성은 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나 너무 오랜 기간 수유를 하여 지나치게 만족을 누린 경우이다.
고착 시 문제 성향은 빈정거림, 논쟁적, 탐욕적, 욕심스러움, 과잉의존, 긴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등이 있다.
구강기의 성공은 타인과의 관계 능력 형성 및 자기 신뢰를 통해 타인에게 건강하게 의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짐.

• 항문기(2세~3세) :

항문활동으로 쾌락을 얻는다. 배설이 유발하는 쾌감을 점차 느끼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설하거나 보유하는 능력은 양육자에 의해 통제 된다.
배변훈련이 개인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 성향은 분노, 우울화 같은 정서적 발작, 강박적 질서정연, 과잉통제된 행동, 인색 등이 있다.
항문기의 성공은 자율성을 획득하고 독립적 능력이 생기며 주도적인 능력을 지니게 된다.

• 남근기(3세~6세) :

정신에너지가 성기로 옮겨간다. 초자아, 즉 나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을 나무라기도 하고 죄의식을 갖도록 하기도 하는 양심이 내면화 된다.
문제 성향은 정체성 확인과 관련된 문제, 부적절한 성적 태도, 지나친 과시욕 등이 있다.
성공적 해소 시, 성 주체성이 굳건해지고 지적 욕구발달을 하게 되며, 충동을 조절하고 건전하고 강력한 초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다.



2.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 신뢰감 vs 불신감(출생~약1세) :

젖 먹기, 기저귀 갈기 등 영아의 욕구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신뢰감 또는 불신감을 갖게 된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은 애착 또는 불안감과 연계된다.

- 자율성 vs 수치심(약 1세~3세) :

영아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타난다.

'내 거야' '아니야' 와 같은 언어를 통해 자아감과 자율성을 표현한다.

부모를 포함한 사회의 기대와 압력을 의식함으로써 수치심을 갖게 된다.

- 주도성 vs 죄책감(약 3세~6세) :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자신의 계획이나 희망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 두려움, 비난, 처벌 등은 죄책감을 발달시킨다.

3. Bowlby 애착이론

- **안전애착 :**

주위 탐색을 할 때에는 양육자와 쉽게 분리된다.

양육자와 분리된 후 다시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하며 편안함을 느낀다

- **회피애착 :**

양육자가 없어도 반응이 없으며 다시 만날 때에도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 **저항애착 :**

양육자와 헤어지기 전부터 불안해하며 매달린다.

헤어진 후에는 심한 분리불안을 보이며 다시 만나도 불안정감, 분노 등을 보인다

- **혼란애착 :**

불안정애착의 가장 심한 형태.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의 결합.

4. Parten의 사회적 놀이 단계

- 혼자놀이(생후 1년) :

자신의 장난감을 갖고 놀이하는 것이 주요 목적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이 혼자 놀이한다.

- 병행놀이(약 2세~3세) :

다른 영유아들 주변이나 가까이에서 동일한 놀이를 하지만 각각 놀이한다.

장난감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함께 놀이하지 않는다.

- 집단놀이(약 3.5세~4.5세) :

또래와 규칙을 지키며 유사한 놀이를 한다.

그러나 역할분담, 계획을 포함한 놀이 내용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한다.

- 협동놀이(약 5세) :

또래와의 타협, 역할분담 등의 규칙과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5. Piaget 인지발달단계

• 감각운동기(출생 후~만2세) :

타고난 감각기능과 반사반응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면서 인지능력을 발달 시킨다.

-**심적표상** :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태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다.

-**지연모방** :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재현하는 모방이 나타난다.

-**대상영속성** : 시야에서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장소에 계속 존재한다.

• 전조작기(만2세~만6세) :

-**상징적 기능** : 나무토막으로 총놀이를 하거나 네모 블록으로 전화기 놀이를 하는 등의 상징적 기능이 나타난다.

-**직관적 사고** : 보존개념, 가역적 사고, 유목화의 어려움을 보인다. 타인의 관점이나 조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이나 조망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자아중심성이 나타난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과 연계 시 유의사항

- 유아가 보이는 문제행동이 꼭 부모와 공유해야 할 문제인지 점검한다

문제행동에 있어 자신이나 다른 친구를 위협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교사가 충분한 기간과 전략을 계획하여 지도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 가정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입교사의 경우, 부모는 아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사의 지도능력에 대한 문제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협조 이전에 원장, 선배교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 상담내용 및 전략을 구성한다.

유아의 문제행동 중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다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영유아가 한 가지 이상의 문제 행동을 갖고 있는 경우, 교사는 가장 먼저 가정과 협력해 나갈 문제행동을 선정한다. 이때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보다는 행동중재가 비교적 쉬운 것부터 가정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다.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행동중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달라진다면 더 어려운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 부모와의 상담을 진행한다

평소 유아를 잘 관찰하고 기록한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부모와도 평상시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교사와 부모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상담시에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공유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부모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갖고 있는 수용정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 영유아가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의 수용 정도가 어떠한지 고려한다

상담과정에서 부모의 반응을 살피고 부모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가정 협조의 한계를 결정한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경우** :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부모가 지원해줄 여력이 없는 경우** :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공유에 만족하고 최소한의 지원사항만 요청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도움받을 만한 전문기관을 소개하거나 가정에서 함께 하면 좋을 지원프로그램 소개

• 부모의 실제적인 지원 요청하기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가 현재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것부터 요청한다.

부모가 지원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알도록 부모의 지원이 영유아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중간 점검 및 피드백

가정의 지원 요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중간 점검을 위한 상담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가정과 상담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지,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좋아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변화된 사항을 격려해주며, 부모로 하여금 유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한다.

18개월 된 우리 아이 : 울거나 떼를 쓰는 등 고집이 너무 강해서 힘들어요

- 영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 : 자율성 vs 수치심(약 1세~3세)

- 영아를 둘러싼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알아본다 :

-○○이는 부모님과 주로 어떤 놀이를 하며 지내나요? 함께 놀이하는 시간은 충분한가요?

-○○이가 떼쓰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이가 떼를 쓸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 상담 시 :

이 시기는 자율성과 자아가 강해지면서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영아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해 줄 수는 없다.

수용을 해 줄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훈육방법이 필요하다

- 유의할 점 :

-떼쓰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의 훈육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부모의 힘든 육아에 대해 공감하고 잠시라도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다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울어요

- 영유아와 양육자 간의 애착관계를 고려한다 : 안정된 애착 또는 불안정 애착

- 영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알아본다 :

- 이가 하원할 때 어떻게 맞이 해 주시나요?

- 이는 하원 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 이와 부모님이 주로 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 상담 시 :

등원 시, 양육자와 헤어지기 힘들지만 어린이집 일과는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 영유아는 어린이집이 싫어서라기 보다는 부모님과 헤어져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성인보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영유아는 보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가정 또는 양육자와 함께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양육자는 영유아가 하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좋다.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하게 될 놀이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줌으로써 영유아가 상황을 미리 예측가능하게 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다.

핸드폰 보거나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제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 영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알아본다 :

-하루에 몇 시간 핸드폰 보거나 게임을 하나요?

-핸드폰 보거나 게임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나요?

-가정에서 ○○이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와 어떠한 놀이 또는 이야기를 하며 지내나요?

- 상담 시 :

영유아가 장시간 핸드폰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양육자가 집안일을 해야한다거나 식사시간, 장소의 이동을 무리없이 진행할 때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

핸드폰 사용, TV시청 등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동화를 찾아 본다거나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는 등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핸드폰 보여줄테니 가만히 있어 ’ 등의 순간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영유아는 핸드폰을 보기 위해 떠들거나 떼를 써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핸드폰.TV시청을 정해진 시간에 시청 및 사용하도록 하고 이외 시간에는 단호 해 져야 하며, 이에 따른 규칙을 영유아와

함께 만들어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좋다

- 유의할 점 :

-영유아를 주로 양육하는 보호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가정에서 핸드폰.TV시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참고문헌

- 유연화.서정연(2020), 영유아 교사를 위한 부모상담의 실제. 공동체
- 박근주 외 (2021), 영유아 부모상담 전 이렇게 했어요. 양서원
- 권준모 (2005), 심리학과 교육. 학지사
- 신유정 외(2018),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파워북
- 태진미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영유아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동문사
-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푸르니 티쳐스 V0.52 부모면담,어떻게 할까요? <https://www.puruni.com/>

감사합니다.